

研究論文

「金英哲傳」의 갈래와 讀法  
- 洪世泰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승 수\*

I. 머리말	V. 독법 2, 입전 인물에서 작가의 삶을
II. 「김영철전」의 갈래, 實傳인가 소설인가?	읽어낸다
III. 「김영철전」의 갈래 정체성에 대한 변론	VI. 「김영철전」의 문학사적 의의
IV. 독법 1, 인생의 성패는 遇不遇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국문요약>

I. 머리말

1619년은 한중 두 나라에게는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억할 만한 해이다. 3월에 있었던 대규모의 전투가 조선과 명, 그리고 後金 세 나라를 크게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이 전쟁으로 後金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전격 부상했고, 반대로 명은 급속하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한 조선은, 이후 몇 차례 더 심각한 전란에 휩싸이며 국가 체제를 위협받게 되었다. 이 군사 사건을 중국에서는 사르후(薩爾滸)전투라 하고, 우리는 보통 深河戰役이라고 불렀다. 모두 승패가 갈린 공간의 지명을 따 붙인 이름이다. 후금이 명의 주력군을 격파한 곳은 사르후산 일대이고, 뒤이어 朝明 연합군이 궤멸당한 곳이 深河이기 때문이다. 深河가 어디인지는 그간 의문에 싸여 있었는데, 최근 遼寧省 桓仁縣 일대를 흐르는 六道河로 밝혀졌다.<sup>1)</sup>

\* 한양대학교 국문과 강사, 고전산문 전공(woohabin@hanmail.net).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는 1만 3천 명의 조선 군대 중, 8~9천 명이 전사했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어 후금의 본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捺)성 일대에 분산 수감되었다. 포로들 중 일부는 현지에 잔류했고,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탈출했고, 일부는 탈출 도중 죽었으며, 일부는 송환되었다. 사망자 수를 추산하면 거의 1만 명에 달한다. 해외 파병사의 한 장을 장식할 만큼 막심한 피해를 당한 이 전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진상 조사나 역사 관리는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사건 이후 수많은 소문들이 유포 전승되었고, 부분적으로 몇몇 측면에서 기록이 시도되었다. 그 중 몇몇은 상당히 문학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다. 다행히 이 몇몇 기록은 다른 시각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심하전역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중사관으로 참전하여, 전투의 전 과정을 다 겪은 李民寔(1573~1649)의 「柵中日錄」과 「建州見聞錄」이다. 두 기록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사료이다.<sup>2)</sup> 두 번째는 전투가 끝난 뒤 권력의 의해 이루어진 기록 작업이다. 金應河(1580~1619)의 의롭고도 영웅적인 죽음을 서사화한 「金將軍傳」과 姜弘立(1560~1627)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그려낸 「姜虜傳」이 대표적이다. 두 계열의 작품은 당시 권력층의 지배 이념이 주도적인 서사 동력으로 작용하여, 전투의 성과를 전적으로 몇몇 개인의 도덕성으로 몰아가 단순화하고 있다.<sup>3)</sup> 세 번

- 
- 1) 王從安, 『薩爾滸戰役東路戰場』, 富國良(주편), 『桓仁史話』(桓仁滿族自治縣人民政府地方誌辦公室, 1999), 86~96쪽 참조. 여기 따르면 조선군이 패배한 富察(또는 富沙) 들판은 六道河 상류의 富沙河가 지나는 곳, 鏢尖子鎮 東堡村에서 紅塘石村 사이의 넓은 개활지라고 한다. 필자는 2006년 8월 이 일대를 1차 찾아보았고, 2007년 1월 28일~2월 3일 당시 조선군의 행로를 답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 『深河戰役의 현장 답사 연구』, 『한국학논집』, 41(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7) 참조.
  - 2) 李民寔의 기록을 기본 사료로 심하전역을 조명한 최근 연구로는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1999)의 2부 2장 「대후금 출병 문제와 대명관계」;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2004)이 대표적이다. 두 편의 논문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펼치고 있어, 심하전역 전후의 역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 3) 이중 「金將軍傳」의 성격과 전승, 그리고 최초의 「김장군전」이 들어있는 『忠烈錄』의 편찬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승수, 『深河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에서 거론하였다. 「강노전」에 대해서는 박희병, 「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 주인공의 등장: 「강노전」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집문당, 1998) 참조.

책은 「金英哲傳」이다. 이는 당시 하급 군사로 심하전역에 참여했던 金英哲(1600~1684)의 일대기이다. 여기에는 평범한 백성의 간난에 찬 행적과 함께 상류 지배층을 바라보는 하층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 深河戰役의 실상은 물론 피지배계층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김영철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 현상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본고는 1717년 홍세태(1653~1725)가 지은<sup>4)</sup> 「金英哲傳」의 갈래 성격과 미의식, 그리고 이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근래 「김영철전」의 원본 계열로 보이는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어 문제가 사뭇 복잡해졌다.<sup>5)</sup> 거기에 원작의 작자까지 새롭게 추정되었다.<sup>6)</sup> 새로 발굴된 자료를 보지 못한 논자로서는 많은 부분 논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시도하는 것은, 홍세태의 「김영철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7)</sup> 원작 계열 「김영철전」에 대해서는 학계에 보고된 논문의 내용과 인용문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김영철전」의 갈래, 實傳인가 소설인가?

「김영철전」은 역사인가, 소설인가? 이 질문은 다음처럼 바꾸어 볼 수 있다. 「김영철전」은 역사서사인가 허구서사인가? 역사 서사와 허구 서사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발전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무 자르듯 양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질문의 기준을 다음처럼 완화할 수도 있다. 「김영철전」은 얼마간의 허구

4) 「김영철전」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그간 한번도 적시된 바 없다. 그런데 『柳下集』의 편차로 보아 홍세태가 입전 취지를 밝힌 시 「讀金英哲遺事」는 1717년에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영철전」 또한 대략 이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해 보인다.

5)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18(2004);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138(2004).

6)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22(2006).

7) 논자는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金英哲傳」을 보고자 하였지만, 곧 번역본이 간행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 작품에 대한 세 편 논고의 내용이 충실하여 비교 자료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 본고의 작성을 진행하였다. 새 작품의 면모는 곧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를 용인하는 정도의 實傳인가, 아니면 사실에 근거를 두되 대부분 지어진 허구인가? 이는 작품 속에 그려진 김영철의 삶의 사실인가 허구인가 하는 문제로 소급된다. 그의 주요 행적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김영철전」은 당연히 논픽션의 범주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판단해야 할 후대인의 몫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모두 「김영철전」을 소설로 보아왔다. 연구의 선편을 잡은 박희병은 傳과 차별되는 「김영철전」의 소설적 특징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었다. ① 서사 갈등이 충분하다, ② 서술자의 시선이 주인공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③ 주변 인물들의 발언이 독자적으로 제시된다, ④ 장면제시기법이 두드러지게 구사되었다, ⑤ 자유간접화법이 구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김영철전」을 傳 내부의 양식적 확장이기보다는 소설 갈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미경 안목으로 섬세하게 소설의 제 요소를 밝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도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김영철전」의 傳 요소를 간과하지는 못했다.<sup>8)</sup> 박희병의 입론을 십분 다 인정한다 해도, 「김영철전」은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소설의 요소를 지녔지만 전체적인 형식과 성격에 있어서는 實傳이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런 사실을 박희병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로 간주한 것은, 소설사를 재구하고 정립하는 구도 속에서 이 작품을 조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영철전」을 17세기 말~18세기 초 우리나라 소설이 거둔 사실주의 성과의 최대치로 높이 평가했다. 또 당대 동아시아 전란과 민중 삶의 관련성을 추적하면서 상층부의 동향까지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사상 역사소설의 면모를 보여준 최초의 작품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했다.<sup>9)</sup> 박희병이 제시한 「김영철전」의 최대 미덕은 사실성과 역사성이 되는 셈이다. 傳奇가 주도해온 초기 소설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미덕은 확실히 이례적일 정도로 두드러진다. 하지만 「김영철전」의 갈래를 허구 서사가 아닌 역사 서사로 본다면, 그러한 특징들은 더 이상 특별한 미덕이 되기 어려워진다. 역사의식을 토대로 사실을 기술한 서사에서, 사실성과 역사성은 이미 그 갈래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희병의 분석

8)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民衆의 삶: 「金英哲傳」의 분석」, 김학성(외 편),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창작과비평사, 1990).

9) 위의 논문, 31, 32쪽.

에 대해, 소설적 허구를 통해 얼마만큼 삶의 풍부한 계기나 국면들을 예술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sup>10)</sup> 이 또한 사실성과 역사성을 「김영철전」의 미덕으로 추켜세운 견해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 할 수 있겠다.

「김영철전」 연구는 이분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자료는 분량도 홍세태의 그것보다 다섯 배 가량 많을 뿐 아니라, 현실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인물의 심리 묘사도 탁월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却說’ 등 소설의 상투어나 다량의 白話 식 표현이 구사되는 등 구어체 소설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양승민은 이 작품이 속종 년간에 나온 소설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그는 홍세태의 작품이 원작을 대거 축약한 것일 뿐이기에 원작의 규명을 위한 대비 자료 정도로 의의가 축소되었다고 했다.<sup>11)</sup> 또 김영철의 모든 행적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치밀하게 설정된 허구로 간주하였으며, 「김영철전」을 전대 傳奇小說의 양식이 더욱 확장된 결과로 보아, 김영철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로 읽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의견대로라면 「김영철전」은 「최척전」 계열의 전기소설 흐름에 포함된다.<sup>12)</sup> 대상 자료가 다르긴 하지만, 이는 「김영철전」을 傳系 한문소설로 규정한 박희병의 견해와도 배치된다.

논문에 인용된 예문만 보아도,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은 홍세태의 그것보다 확실히 소설적 생동감이 넘친다. 하지만 양승민의 논의대로,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을 홍세태가 읽은 「김영철유사」와 동일 계열의 작품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한두 가지 심각한 의문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혁래의 추정 에 의하면 「김영철유사」가 씌어진 시기는 1660~1680년 전후임에 반해,<sup>13)</sup> 홍세태가 이 글을 본 시기는 1717년인 데 반해 새 자료는 지질이나 표기 형식 등으로 보아 빨라도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텍스트이다.<sup>14)</sup> 둘 사이에는 많게는 200년,

10)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 15세기 「金鰲新話」에서 18세기초 「金英哲傳」까지, 『민족문학사연구』, 2(1992), 122쪽.

11) 양승민·박재연, 앞의 논문, 98~100쪽.

12) 양승민, 앞의 논문, 298~301쪽.

13) 권혁래, 앞의 논문(2006), 100쪽.

14) 위의 논문, 107쪽.

적어도 150년 가량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 200년에 가까운 시차를 무시하고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을 원작 계열로 추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여기에 내용에 있어 여성의 시각이 한층 강화된 한글본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sup>15)</sup> 김영철 이야기는 두 갈래 방향으로 전승 변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에 나오는 여러 인명과 지명 등이 홍세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한글본과 한문본 두 작품이 모두 19세기 소설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영철 이야기의 생성 및 변모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김영철유사 (17세기 말) → 實傳 (홍세대의 「김영철전」)

→ 소설 (한글본 「김철전」 / 새로 발굴된 한문본 「김영철전」)

이러한 가설이 인정된다면, 홍세대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여기서 다시 「김영철전」의 갈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박희병의 소론과는 달리, 홍세대가 지은 「김영철전」의 갈래 본질은 아무래도 實傳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데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다. 첫째는, 서사가 실제 여러 가지 역사 상황에 종속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는 시간, 공간, 인물, 사건 등의 역사 표지가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거의 빈틈없이 사실에 부합된다. 다만 阿羅那와 田百年 등의 등장인물이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둘째, 「김영철전」의 내용이 당대와 후대에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홍세대와 비슷한 시기를 산 李棟完(1651~1726)은 「김영철전」을 읽고 소감을 기록해두었는데, 그 마지막에 김영철의 무덤이 평안도 順安縣에 있다는 전언을 밝히고 있다.<sup>16)</sup> 이는 당대 김영철의 행적이 사실로 전승되었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표지이다. 또 이 작품이 『必東錄』에 수록되었고,<sup>17)</sup> 작품에서 그려진 김영철의 행적이 『국조인물고』에 소개된 것 또한 「김영철전」이 후대에 역사기록으로 수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sup>18)</sup> 세 번

15) 한글본의 특성에 대해서는 권혁래, 「나손본 「김철전」의 史實性과 여성적 시각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15(1999) 참조

16) 李棟完, 『茅山先生文集』 권3, 「金英哲傳後識」. “今上十年癸亥, 英哲卒年, 八十有五, 平安之順安縣 其有塚云.”

17)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必東錄』 권10, ‘同志’ 조에 홍세대의 글이 전제되어 있다.

18) 이밖에 앞선 논의에서 밝힌 바대로, 安錫儼(1718~1774)와 成海應(1760~1839)은 홍세대의 기록에

째는 「김영철전」이 보여주고 있는 정통 傳으로서의 완결된 형식이다. 박희병의 지적대로 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傳으로서의 전체 형식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흥세대가 보았다는 원작 「김영철유사」의 성격이다. 새 한문본은 ‘皇明萬曆末’로 시작되는 서두의 관습 어법이라든가, 김영철이 출정하기 앞서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말 중 ‘唯願千萬保重保重’의 말투, ‘却說’ 등 소설 용어의 구사, 그리고 김영철의 등주 아내 처지나 어머니의 발언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진 점 등으로 보아, 소설의 면모가 약여하다. 한글본 「김철전」의 경우 또한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이 작품들은 저작 시기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한문본의 경우 소설의 면모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작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역사 표지들이 서사 전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의 「최척전」과 견주어볼 때 사실 기록의 태도가 서사 흐름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實傳의 토대 위에서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한글본 「김철전」과 새 한문본이 유통, 수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논자는 김영철 이야기가 實傳에서 출발하여 소설로 변모하였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 III. 「김영철전」의 갈래 정체성에 대한 변론

(列)傳의 갈래 속성과 미학 원리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초점 없이 이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sup>19)</sup> 여기서는 그간 『김영철전』에 관해 이루어진 논란으로 범주를 좁혀서 고찰할 텐데, 그 전에 잠깐 史傳과 소설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효율적 논의를 위해 淸初의 비평가 金聖嘆(1608~1661)의 견해를 원용하기로 한다. 김성탄은 『수호전』에 평점을 가해 간행하면서, 서사의 공통성

의거하여 김영철의 행적을 소개하였다. 또 朴允默(1771~1849)이 남긴 「讀柳下所撰金英哲傳遂書此以悲之」(『存齋集』 권3)의 성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 傳과 소설의 갈래 차이 및 傳에서 소설로의 갈래 轉化에 대한 것은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의 2장과 3장 참조.

위에서 『사기』와 『수호전』의 문장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아래는 그중 하나이다.

『史記』는 문장으로 사건(실)을 운용한 것이고, 『수호전』은 문장으로 인하여 사건을 지어낸 것이다. 문장으로 사건을 운용했다 함은, 먼저 이리이리하게 생성된 사건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한편의 문자를 불러올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다. 사마천과 같은 높은 재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문장으로 인하여 사건을 지어내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저 붓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높은 것은 깎아내고 낮은 곳을 기우는 모든 일이 내게 달려 있다.<sup>20)</sup>

『사기』와 같은 역사 서사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사실들을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하는데 반해, 『수호전』과 같은 허구 서사의 특징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김영철전」의 경우, 김영철의 출정, 被虜, 만주족 여인과의 결혼 및 得子, 한족 포로와 함께 한 탈출, 한족 여인과의 결혼과 得子, 조선 사행의 배를 타고 귀국, 재출정, 阿羅那·田有年·만주 아들과의 재회, 청태종과의 만남, 만년 자모산성에서의 곤궁한 생활과 이역 처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 등 사건들의 사실 여부가 갈래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서사의 짜임새가 역사 조건에 빈틈없이 매여 있는 점과 당대의 수용 태도로 보아 논자는 많은 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들로 판단한다. 요컨대 「金英哲傳」은 ‘以文運事’에 해당되는 셈이다.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의 작품 가치에 대한 논란도 짚고 넘어갈 필요하다. 새 자료가 발견되면서 홍세태의 작품은 그 고유성과 독자성은 일순 평가절하되기 시작했다. 「김영철유사」를 토대로 홍세태가 강한 주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형태로 창작했다는 박희병의 견해는 부정되었고,<sup>21)</sup> 홍세태는 진정한 의미의 작가라 할 수 없으며 축약자 또는 개작자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sup>22)</sup>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앞서 논의한대로 긴

20) 김성단, 「讀第五才子書法」, 『第五才子書施耐菴水滸傳』 권3. “『史記』是以文運事, 『水滸』是因文生事. 以文運事. 是先有事生成如此如此, 卻要算計出一篇文字來, 雖是史公高才, 也畢竟是喫苦事. 因文生事即不然. 只是順着筆性去, 削高補低都繇我.”

21) 양승민·박재연, 앞의 논문, 98쪽.

22) 권혁래, 앞의 논문(2006), 2쪽.



시차를 무시하고 새 자료를 원작 계열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새 자료를 원작 계열로 인정한다고 해도, 홍세태의 작품이 독자적으로 수용되었고 재창작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학작품이 사회·역사적으로 존립하는데 있어, 유통과 수용이 본질적인 조건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그 유통과 수용의 경과를 헤아리기 어려운 한글본 「김철전」이나 새 자료에 비해서, 홍세태의 작품은 오히려 확실한 역사적 존재 기반을 지닌 셈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傳의 갈래 속성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傳이 그 역사적·형식적·미학적 연원을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두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마천은 역사서술의 입장에서 據事直敘의 원칙 아래 『사기열전』을 엮었지만, 자신의 저술이 옛 사적을 정리한 것이지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sup>23)</sup> 당연히 입전 대상들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들의 행적 또한 대부분 『춘추』나 『전국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다. 사마천은 수많은 사료들을 취사선택하고 『사기』 전체의 구성과 안배를 고려하여 한편의 독립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다. 청나라 때의 姚祖恩이 「信陵君列傳」을 거론하면서, “다른 전들은 『전국책』에 근거를 두고 산삭하고 윤색하여 구성해낸 것이 많은데, 오직 이 편만은 별 粉本이 없다”<sup>24)</sup>고 한 것은 『사기열전』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심지어 「자객열전」 중 荊軻의 경우 『전국책』의 내용을 거의 고치지 않고 앞뒤에 약간을 가필함으로써 문학적 효과만을 극대화했을 뿐이다.<sup>25)</sup>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표절에 해당되지만, 2천년 동안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극찬한 것은, 열전의 미학 기준이 창작 여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세태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자료에 입각해서 김영철의 삶을 立傳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김영철의

23) 『사기』 권72, 「太史公自序」. “余所謂述故事, 整齊其世傳, 非所謂作也.”

24) 『史記菁華錄』 권3, 「信陵君列傳」의 上批. “他傳多本國策原本舊文而刪潤成篇, 惟此別無粉本. 故信陵君是史公意中極愛慕之人. 此傳亦生平最用意之筆也.”

25) 『史記菁華錄』 권4, 「刺客列傳」의 尾評. “태사공은 그 문장의 기이함을 사랑하여 자기 멋대로 자구를 고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뒤에 솜씨를 발휘하여 형가의 沈沈儒雅를 묘사함으로써 평범한 흐름을 멀리서 끊어버렸다. 그리고 고점리의 신중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천고에 나란히 둠으로써, 너무 疎莽하여 성공하지 못한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야기는 허구라는 전제아래, 소설사의 구도 속에서만 「김영철전」을 읽으려 한다면, 작품이 온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철전」의 경우 무리하게 소설사로 끌어오기에 앞서, 본래의 탄생 지점이나 역사적 위치에 따라 먼저 傳으로 보고 검토해야만 논점과 대상 사이의 괴리를 없앨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따져볼 것은 허구의 개입 문제이다. 「김영철전」의 갈래가 史傳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 안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어야 하는가? 역사 서사에서 상상력과 허구의 개입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투키디데스는 역사 서사에서 허구로 꾸며내는 것이 불가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章學成은 역사 담론의 허구를 논하면서, 사건을 기록할 때 첨가와 창조는 금지사항이지만 역사 인물들의 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독창성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리피르는 아예 역사는 허구의 방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sup>26)</sup> 여러 사건의 연속성을 인과 관계로 구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물들의 독백이나 은밀한 대화 등은 많은 부분 창작일 수밖에 없다. 『사기열전』이 오랜 세월 역사서의 비중 못지않게 문학서로 읽혀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철전」에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작품의 갈래가 史傳이라 함은, 인물과 사건 모두가 실사에 근거를 두고 있되, 인물들 사이의 대화나 세밀한 묘사 등에 있어서는 허구가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 「김영철전」의 갈래를 확정하지는 것은 아니다. 박희병의 지적대로 이 시기는 서사문학의 흐름이 복잡적이고 역동적으로 펼쳐졌으며, 「김영철전」은 그러한 장르 운동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sup>27)</sup> 김영철의 행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한, 또 「김영철전」이 實傳과 소설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한, 굳이 어느 한 갈래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본고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홍세태의 「김영철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

26) 역사와 허구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루샤오핑/조미원(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김, 2001)에서 빌려온 것이다. 투키디데스와 장학성과 리피르의 견해는 각각 62~63쪽, 71~72쪽에 소개되어 있다.

27) 박희병, 앞의 책(1993), 47쪽.

에, 傳의 독법으로 「김영철전」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설사에 포함시켜 논의할 때와는 다른 「김영철전」의 예술성을 확인할 것이고, 또 문학사의 다른 지점에서 홍세태의 작품이 지니는 독자적 의의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 IV. 독법 1, 인생의 성패는 遇不遇에 달려있다

「김영철전」을 傳이라고 전제할 때, 그 양식적 속성에 의거하여 이 작품을 효율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의 「김영철전」 이해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논평을 낸 사람은 이동완이다. 이동완이 「김영철전」에서 인상 깊게 읽어낸 것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내 부모를 찾아온 김영철의 효행이다. 효의 관점에서 建州와 登州의 처자를 돌보지 않은 것도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 처자를 돌보느라 부모 봉양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감계까지 덧붙였다.<sup>28)</sup> 安錫倣은 「김영철전」에서 윤리가 어지러워진 난세의 슬픔을 읽었고, 김영철이 건주와 등주에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부부 부자 사이의 윤리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sup>29)</sup> 부모를 찾는 효행과 처자를 버리는 亂倫 사이의 모순을 보았지만, 무계의 중심을 효행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운목 또한 김영철이 君親의 倫紀를 중시하여 처자애정을 돌보지 않은 것을 칭송하였으며, 만년의 곤궁한 삶도 국가에서 그 忠孝를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sup>30)</sup> 여기에 尊周大義 정신의 고취를 내세운 『必東錄』에 채수록된 사실까지 아우르면,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철저하게 충효

28) 李棟完, 『茅山先生文集』 권3, 「金英哲傳後識」. “無名氏曰, 余觀或人所爲金英哲傳者, 筆勢贍麗可玩, 而頗傷冗雜野, 余遂刪改潤色焉. 嗟呼, 金英哲以鋒鏑餘生, 窮大漠, 截滄海, 跋涉數萬餘里. 凡經七死生, 卒以天年死, 其奇異絕特, 已足以資談士齒舌. 而建之愛子, 登之賢妻, 皆投棄不顧, 百躡辛楚, 逃還故國, 如水之萬折而必東者, 以親之故也. 非至誠而能然乎? 嗟呼, 英哲眞孝子矣. 彼私其妻子, 而不顧父母之養者, 獨何心哉!” 처음의 밑줄 부분을 보면 「김영철전」이 누군가에 의해 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이 당대 여러 경로로 전승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흥미롭다.

29) 안석경, 『雪橋集』(上)(아세아문화사, 1986), 237쪽. “然使英哲誠一心舊邦, 百計必還, 則所之兩邦, 不取妻生子, 庶幾無傷倫之恨矣.”

30) 박운목, 『存齋集』 권3(문집총간 제292책, 51쪽). “英哲賢乎不負名, 流離南北隻身輕. 殊方畢竟歸吾土, 萬死中間得一生. 但識君親倫紀重, 何論妻子愛憐情. 當時忠孝誰相惜, 白首無衣守古城.”

윤리의 관점에서 「김영철전」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傳이 이념 고취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조선후기 문학사의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연구자들의 해석은 확실히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그것을 넘어선다. 박희병은 천신만고 끝에 귀국하여 집안의 대를 잇는 효행과 종군의 괴로움 및 군역의 가혹함을 읽어냈다.<sup>31)</sup> 김진규는 박희병의 견해에서 한걸음 나아간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효와 군역 비판은 표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면에서 윤리적 긴장과 갈등이라는 초월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효행과 이국 처자에 대한 연민 사이의 아이러니, 그리고 건주와 등주 처자의 고뇌와 비애를 말함이다. 또 김영철의 인간 관계를 우정과 연민에 바탕한 연대와 잔인성과 모순의 착취 두 계통으로 파악하여, 「김영철전」은 두 관계를 대비 경쟁시키며 삶의 본질과 의미를 집요하게 묻는다고 하였다.<sup>32)</sup> 이는 傳의 특성상 서사의 이면에 잠복해 있는 건주와 등주의 두 처자를 표면으로 부상시키고, 이들을 서사의 주요 갈등과 대결의 축으로 되살려낸 것으로, 「김영철전」의 풍부한 서사 내포를 발견한 성과라 하겠다. 이 견해는 일정 정도 한글본 「김철전」의 연구 성과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김철전」과 한문본 새 자료의 발견으로, 김영철 이야기는 소설사의 위상이 일약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의 폭 또한 확연히 넓어졌다. 권혁래는 한글본 「김철전」에서 강렬한 현실비판 의식과 더불어 여성 독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밝혔다. 한글본 「김철전」은 「김영철전」이 소설사의 영역에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이 증거이다. 양승민은 현실 비판 의식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새 자료 「김영철전」은 당시 국가 대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순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을 부정하고 청나라를 옹호하는 데서 나아가 아예 청나라에 대한 귀화 의지까지 보여준다고 하였다.<sup>33)</sup> 과격한 주장처럼 느껴지지만, 새 자료 「김영철전」에는 분명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대상 텍스트가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시대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가의 견해는 모두 넓게 보아 「김영철전」의 지평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31) 박희병, 앞의 책(1993), 28~33쪽.

32) 김진규, 「김영철전의 포로소설적 성격」, 『새얼어문논집』, 13(2000), 279~285쪽.

33) 양승민, 앞의 논문, 292~295쪽.

여기서는 위 제가들의 견해를 십분 수용하는 가운데, 傳의 미학 원리에 입각하여 「김영철전」을 읽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견해들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갈래 특성에 입각한 선명한 독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기열전』의 미학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기열전』은 인물에 따라 각각 다양한 체제를 시험하고 있어, 그 형식에 있어 통일성을 추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대요를 추리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한 인간이 어떻게 세계와 맞서고 좌절하고 자아를 실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의 알아줌[知遇]을 입었고, 또 누구의 능력을 알아보아 더 큰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인물의 성패가 遇不遇에 달려있다는 원칙은 거의 모든 인물에 적용되고 있다. 능력과 진실을 알아주는 이를 만난 사람, 나아가서 남의 재주를 알아보고 쓰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인생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사기열전』의 거의 전편을 일관한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 『사기열전』 70편 중에서 사마천이 마음으로 흠모하고 복종했던 사람으로는 晏嬰과 信陵君이 일컬어진다.<sup>34)</sup> 두 사람의 열전은 사마천 특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안영은 管仲과 합전되어 있다. 관중의 전에서는 포숙아와의 우정이 정채로운데, 사마천은 “천하 사람들이 관중의 현명함을 높이 치지 않고 포숙아가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했다”고 하여, 관중의 업적은 포숙아의 知鑑에 힘입은 것임을 적시했다. 안영의 전에는 越石父 및 御者 관련 일화만이 단출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안영이 지닌 ‘仁而下人’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sup>35)</sup> 신릉군의 행적에서는, 자신의 몸을 굽혀 초야의 은자 侯嬴를 찾아가 모셔오고, 뒷날 侯嬴의 계책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서사의 줄기이다. 得士의 과정에 전 필력을 기울이고 막상 전쟁에 대해서는 두어 줄로 넘어가는 이 구성을 두고 후대의 비평가들은 예외 없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sup>36)</sup> 사마천은 두 열전에서

34) 사마천은 두 사람의 삶을 논찬하면서 그런 심정을 노출시켰다. 晏嬰 같은 인물이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를 위해 말 채찍을 잡을 것이라 했고, 信陵君의 일화가 남아있는 옛터를 찾아서는 마음을 다하여 거둬 칭송하였다.

35) 「관안열전」의 구성을 두고, “관중과 안영의 공업은 매우 위대하지만, 태사공은 한둘 일화만을 실었으니, 그 대요가 ‘結交推賢’에 있다는 뜻을 부친 것이다”라고 한 陳子龍의 견해는 사마천의 의중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진자룡의 말은 『史記評林』 권62.

36) 「신릉군전」에 대한 역대 제평은 『사기평립』과 『사기정화록』의 해당 편목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세 사람의 위업을 낱낱이 열거하는 대신, 한두 일화만으로 인물의 성격과 능력을 상징화시켰는데, 그 핵심은 ‘知人’ 또는 ‘得士’로 요약된다. 「자객열전」의 “士, 爲知己者, 死士”는 그러한 생각을 단적으로 표출한 명제이다.

이 원리는 「김영철전」의 독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김영철이라는 한 인물이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나간 일생 행적을 그려내고 있다. 충효라는 국가 윤리가 표면에 드러나긴 하지만,<sup>37)</sup> 그 저변에 흐르는 情調는 悲哀인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한다. 그 비애의 근원은 1차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가족 이산이다. 심하전역으로 인해 김영철이 할아버지 및 부모와 이별하였으며, 김영철이 종군한 뒤에는 남은 가족마저 흩어지고 말았다. 이후 김영철은 建州와 登州의 처자와 잇달아 헤어졌다. 뒷날 자모산성에서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김영철의 모습은 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여기에 건주와 등주 처자의 입장과 정서, 그리고 김영철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대폭 강화된 것은 소설적 상상력과 민중의 공감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시종 김영철의 삶에 비춘 초점을 흐트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傳의 갈래 규범을 유지한 것이고, 작가의식의 있어서는 홍세태가 상층 이데올로기의 견인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실상 홍세태의 작품에서 건주와 등주의 처자, 그리고 영철 어머니는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1차 상황 말고 김영철의 비애감을 조성하는 2차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深河戰役은 물론 무사 귀국한 뒤에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들 때문이다. 아래는 귀국한 뒤 김영철이 겪은 일들이다.

[1] 그러나 전쟁 뒤인지라 마을은 쓸쓸하고 골육은 흩어졌으며 가업은 황폐해졌으니,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어 길 위에서 목 놓아 울며 다녔다(然兵火之後, 閭井蕭然, 骨肉漂散, 家業蕩盡, 無以自資, 行哭於途).

[2] 현령은 영철을 불쌍하게 여겨 자기가 탔던 말을 阿羅那에게 돌려보내도록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어 영철은 풀려날 수 있었다. 그 뒤에 현령

있다.

37) 이를테면 인조반정 이후 널리 유포되어 있던 지배층의 광해군 밀지설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나, 처자를 두고 떠난 김영철의 행위를 田有年이 효행으로 칭찬한 것, 또 李羣秀가 영철이 효자라는 이유로 자기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은 결국 그 말 값을 받아냈다(縣令憫之, 以其乘, 使還阿羅那, 又與其人他物, 英哲乃得免. 後縣令竟取其馬直).

[3] 영철이 집에 돌아온 지 몇 달 되었는데, 군량을 맡은 호조 관리가 영철에게 은 2백냥을 독촉했다. 영철은 靑驃를 팔고 가산을 기울여 겨우 반을 납입했지만, 나머지는 갖추지 못해 친척들의 힘을 빌려 그 수를 채울 수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가여워했다(英哲還家數月, 戶曹牒管餉使, 督英哲銀二百兩. 英哲鬻靑驃 傾其家藏 僅納其半 而餘無以辦 賴親族力助 以足其數 聞者憐之).

[4] 무술년(1658) 조정에서 慈母山城을 수축하는 명을 내리면서 守卒을 모아 노역을 면제시켰다. 영철은 곧 네 아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60이 지났다. 가난하고 늙은 데다 처지가 무료했으니 매양 그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다(戊戌朝廷命修慈母山城, 募守卒免役. 英哲卽與四子者, 入居城中, 年已六十餘矣. 窮老無聊, 每意不平).

[1]은 곡절 끝에 귀국한 영철이 맞은 상황이다. 국가가 백성을 전쟁에 동원했으면, 참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17세기 초반 조선 조정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오히려 남은 가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았다. 패전 소식 이후 수많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 속에서도, 비변사의 신료들이 걱정한 것은 오로지 대국 명나라의 의심을 사는 것뿐이었다. 심하전역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조정은 전사자와 실종자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는 1636년 겨울 椴島 공격에 재참전한 김영철이, 淸陣의 阿羅那 조카에게 붙잡혀갈 뻔하자 영유현령이 자기 말을 대신 내주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김영철은 그 뒤 끝내 현령의 말 값을 물어내야만 했다. 영철은 비슷한 일을 거듭 겪는다. [3]은 1641년 파병군의 일원으로 錦州戰役<sup>38)</sup>에 종군했던 영철이 아라나를 만나 다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선 장수 柳琳(1581~1643)<sup>39)</sup>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뒤의 일이다. 호조에서는 끝내

38) 원문에는 金州로 되어 있는데, 錦州의 오키이다. 金州는 大連半島 끝에 위치한 지명으로 1641년의 전투와는 상관이 없다. 錦州는 遼寧省 서쪽 山海關 가까이 있는 곳으로, 1644년 入關 전까지 松山 등지와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39) 『인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파병군의 장수였던 柳琳은 1641년 2월 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교체되어 돌아온다.

자신을 代贖한 담배 값을 물어내게 하였고, 그걸 갚느라 영철의 자신의 가산을 거덜냄은 물론 친지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 [4]는 김영철의 만년 행적이다. 세 차례나 전투에 참여하여 온갖 고생을 감내했지만, 김영철에게 남은 것은 노년의 곤궁함 밖에 없었다. 그는 60세가 지나서도 자모산성<sup>40)</sup>의 수졸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김영철이라는 하층 군졸이 어떻게 아무런 보상 없이 국가로부터 착취당하였으며, 그 결과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가는 대대적으로 忠孝를 강요했지만, 그건 오로지 지배층의 권익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충효 윤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가는 하층민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만을 요구했을 뿐 어떠한 복리도 제공하지 못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한 백성의 삶이 고달프고 비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기 백성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착취만 하는 국가 또한 허위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김영철전」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철이 만났던 일군의 사람들 모습을 통해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중에서 특히 당시 조선 지배층이 국시로 내세워 부정했던 淸主의 태도는 조선 지배층의 태도와 극명하게 상반된다. 1641년 금주전역에서 김영철을 다시 만난 阿羅那는 虜主에게 옛일을 고하며 벌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虜主가 보인 반응은 의외이다.

영철은 본디 조선 사람이다. 8년은 우리 백성이었고, 6년은 등주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 조선의 백성 또한 우리의 백성이다. 하물며 그의 큰 아들이 우리 군중에 있고, 작은 아들은 우리 건주에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우리 백성이다. 저 등주 사람인들 우리 백성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로부터 천하를 얻으려는데, 이 사람이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sup>41)</sup>

40) 慈母山城은 황해도 평산군에 있다. 병자호란 당시 서도 방비의 요충지임이 확인되었다. 1649년 정태화는 西路의 민을 만찬 곳으로 자모산성을 지목했다. 1663년 9월 기록을 보면 당시 자모산성을 개축하고 있었으며, 1669년에는 자모산성 수축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은밀히 상을 내린 일이 있다. 이로 보아 작품의 배경인 1558년 직후는 이 산성이 수축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1) 「김영철전」. “英哲本朝鮮人，八年爲我民，六年爲登州民，今還爲朝鮮民。朝鮮民亦我民也，況其大男在我軍中，小子在我建州。父子皆爲我民，則彼登州獨不爲我民乎？吾得天下自此始，此人之來，豈非天乎？”



虜主는 말끝에 영철에게 비단 열 필과 긴장한 말 한 필을 하사했다. 영철이 그 말을 아라나에게 주어 살려준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자, 노주는 다시 靑驪 한 필을 주었다. 관대하기 그지없는 虜主의 태도는 적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감동적이다. 청나라는 후금 초부터 이미 포로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sup>42)</sup> 누르하치를 이은 청태종은 1631년 大陵河城 전투를 계기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무정책을 펼쳤다. 결과 많은 인재들이 명을 버리고 청을 택했다. 1633년 孔有德, 耿仲明이 관병 수천 명을 이끌고 산동성 등주에서 배를 타고 와 투항했고, 廣鹿島 부장 尙可喜와 石城島 총병 沈志祥 등도 귀순했다. 청태종은 1635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인재가 근본이고, 신하를 삼는 데는 추천이 중요하다. 國治以才爲本, 人臣以薦爲要’고 하여 능력 있는 인사를 적극 추천하면 출신 경력에 상관없이 능력대로 발탁할 것임을 유시하였다.<sup>43)</sup> 명나라 관료들의 귀순은 1642년 薊遼 총독 洪承疇와 錦州 총병 祖大壽의 투항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청나라는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몽골군과 명군은 물론 조선군도 八旗에 편제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이민족 포용 정책은 입관 이후 청조의 전성기 내내 지속된다.<sup>44)</sup> 또 당시 청나라의 對明 전쟁에 참여했던 조선군들은 의외의 후대에 대단히 만족해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참전을 자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sup>45)</sup>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김영철이 실제 청태종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둔다 하더라도, 虜主가 보여주는 태도는 역사적 사실과 크게 어긋남이 없다.<sup>46)</sup>

김영철이 淸陣에서 받은 관대하고 두터운 대접은, 그 자체로 조선에서 받은 가혹하고 비참한 대접을 선명한 反襯法으로 드러낸다. 열전의 미학원리에 입각해 보면, 김영철은 국가를 위해 무한 봉사를 하고도 그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42) 누르하치는 1618년을 전후하여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여 포용하기 시작했다(李民賓, 『柵中日錄』의 1620년 5월 28일, 6월 15일조 참조). 처음부터 인재와 군사가 적었던 후금은 포로들을 받아들여 씬으로써 자신들의 세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1617년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명나라 廣寧巡撫의 요구에 누르하치가 “朕征戰所獲者, 卽我民也”라 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皇淸開國方略』 권5).

43) 『皇淸開國方略』 권20.

44) 이승수(외),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푸른역사, 2005), 370쪽.

45) 나만갑/윤재영(옮김), 『병자록』(정음사, 1974).

46) 이 부분 또한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에서는 한결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그려진다. 양승민, 앞의 논문, 294쪽 참조.

비참한 삶의 표상이다. 「사기열전」의 독법이 「김영철전」의 해석에 유효하지만, 「김영철전」의 전부를 해결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영철전」에는 17세기 조선 하층민의 시각과 삶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특수한 현실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김영철전」에서 그 孝行만을 읽으려 하고, 홍세태가 의도한 바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민의 불우하고 비참한 삶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또 다른 수용층에서는 홍세태가 주변에 미약하게 배치해놓은 여성들의 삶을 주목하여 확장시켰고, 또 같은 맥락에서 조선 지배층에 대한 증오와 불신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놓았다. 그것이 바로 한층 더 소설로 진화한 한글본 「김철전」과 새 자료 「김영철전」의 모습이다.<sup>47)</sup>

## V. 독법 2, 입전 인물에서 작가의 삶을 읽어낸다

홍세태는 입전 취지에 해당되는 시 「讀金英哲遺事」의 小序의 마지막에 “나는 이(김영철의 삶)를 매우 슬퍼하여 그를 위해 전을 짓는다. 余甚悲之, 爲立傳”고 밝혔다. 입전의 동기는 김영철의 삶을 ‘매우 슬퍼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김영철전」이 애초부터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으로 자신의 동감과 공명을 토로하는 데서 출발했음을 말해준다. 이를 인정한다면 「김영철전」을 읽는 데 있어 우리는 어느 정도 작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의 논의는 「김영철전」이 지닌 소설 문학적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새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작가로서의 홍세태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사기열전』은 처음부터 사마천의 강렬한 자의식 속에서 잉태된 것이다. 그는 공자의 『춘추』나 굴원의 『이소』 등은 모두 ‘發憤’의 소산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작업은 모두 마음속에 울울하게 맺힌 바가 있어 옛일을 풀어 미래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sup>48)</sup> 이는 자신의 작업 또한 그러한 작업과 일맥 선상에 있음을 말한 것이

47)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이 있다. 김진규와 양승민은 작품에서 명나라 사람을 蠻子로 지칭한 표현을 두고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였다. 하지만 蠻子는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만주 사람들이 한족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일반 명칭이었으니, 작품에서는 당시의 실상대로 이 용어를 사용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한다. 한족을 蠻子라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연행록에 관련 기사가 보인다.

다. 『사기열전』은 출발부터 객관적 사실과 개인적 주관 사이의 경계 위에서 탄생하였고, 이것이 역사와 문학의 성격을 함께 지니게 된 이유이다. 단적인 예로 『사기열전』 맨 앞에 「伯夷列傳」을 배치한 사실을 두고, 후대의 많은 비평가들은 사마천의 발분과 원망을 백이의 삶에 투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홍세태와 같은 시기를 살았으며 가까이 교유했던 金昌翁(1653~1722)도 「백이열전」을 두고, “백이를 찬술한 것이 아니라 許由와 務光을 슬퍼한 것이며, 허유와 무광을 조문한 것이 아니라 태사공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영철전」에서 작자 홍세태의 삶을 읽어내는 작업이 가능하다. 홍세태는 평생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뛰어난 문재를 지녔지만, 평생 겨우 세번 제술관을 지냈고, 외직으로 울산감목관을 역임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다른 수완 있는 중인 역관들처럼 부를 축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더구나 가정사에 있어서도 8명의 아들을 떠나보냈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두 딸도 「김영철전」을 지을 무렵인 63세와 67세에 먼저 죽고 말았다.<sup>50)</sup> 「김영철전」을 지은 해인 65세 때엔 “문을 나서도 어디 갈 곳 없으니, 천지간에 이 몸은 孤單하구나. 온갖 일은 서글픈 눈물에 들고, 봄바람은 백발에 불어오누나”<sup>51)</sup>라 하여 몸과 마음 붙일 데 없는 심정을 읊조렸다. 또 이태 뒤인 67세에는 “읽은 책 만 권이나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 늙어 장한 계책 풀밭에 떨어졌네”<sup>52)</sup>라고 하여 절망적인 심정을 내비쳤다. 또 ‘牢愁感憤, 鬱悒不平之氣’<sup>53)</sup> 열 자로 자신의 복합적으로 불우했던 삶을 요약하기도 하였다.

홍세태는 김영철의 삶에 정서적으로 감염되었고, 그의 삶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비감한 심정을 엮어 드러냈던 것이다. 입전 취지에서 말한 바대로, 그는 김영철

48) 『사기』 권72, 「태사공자서」. “韓非因秦, 說難·孤憤, 詩三百篇, 大抵聖賢發憤之所爲作也. 此人皆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也, 故述往事, 思來者.”

49) 『三淵集』 권36, 「漫錄」. “伯夷傳, 非贊述伯夷也, 乃悲弔由光也. 非弔由光也, 乃太史公自悲也. 生而身毀不用, 有甚於伯夷之餓沒而湮滅不稱, 將與由光同歸, 豈不悲乎. 知一篇大旨不過如此, 則從頭釋去, 可迎刃而解矣.”

50) 홍세태 삶의 대략에 대해서는 이상진, 「조선후기 여항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의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1991), 40~59쪽 참조.

51) 『柳下集』 권6, 「出門無所適」. “出門無所適, 天地此身孤. 萬事入危涕, 東風吹白鬚.”

52) 『柳下集』 권13, 「塩谷七歌 1」. “有客有客字道長, 自謂平生志慨慷. 讀書萬卷何所用, 遲暮雄圖落草莽.”

53) 『柳下集』 권10, 「自警文」.

의 행적을 의롭게 보기보다는 슬프게 인식했던 것이다. 시의 마지막 두 구절, “살아 외선 도리어 나그네 되니, 무너진 성 지키며 늙어 죽었네(生還反爲客, 老死守殘陴)”에서 알 수 있듯, 홍세태는 끝끝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김영철을 조문했던 것이다. 작품에는 泣자와 涕자가 각각 7차례씩, 그리고 悲자 3차례, 淚자와 涕자 2차례, 憐자가 한 차례 사용되었다. 이는 때론 哭하고 때론 泣할 수밖에 없는 작중 인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대하는 홍세태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백이열전」에 대한 김창흡의 표현을 빌린다면, 홍세태는 김영철을 슬퍼한 게 아니라 건주와 등주의 처자를 조문한 것이고, 건주 처와 등주의 처자를 슬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슬퍼한 것이다. 홍세태의 그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논평부의 발언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외사씨는 말한다. 영철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달이나 중국으로 들어갔다. 처자가 있었지만 모두 버리고 끝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어찌 그 뜻이 뜨겁지 않은가! 그 일이 또한 기이하다 할 만하다. 가도 전투에 동원되었을 때 죽을 곳을 드나든 노고가 적지 않으니 그 공을 기록할 만하다. 하지만 손뚱만한 상도 받지 못했고, 현령은 말 값을 기어이 받아냈고, 호조에 서는 담배 값을 독촉하였으며, 늙도록 성을 지키는 병졸로 부렸다. 곤궁과 억울함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으니, 이것으로 어찌 천하에 충의지사를 권면할 수 있으랴! 나는 그 사적이 사라져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을 지어 후세 사람에게 보여 동국에 김영철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sup>54)</sup>

홍세태 또한 사마천의 예에 따라 주관적인 태도로 논평을 시도했다. 첫 번째로 처자를 버리고 고국에 돌아온 烈行을 들었으나, 역시 발언의 무게는 국가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곤궁하고 억울하게 죽은 뒷부분에 놓여있다. 열행을 말하는 ‘其事亦可謂奇矣’에서 부가의 의미를 지닌 ‘亦’자가 그런 사실을 대변한

54) 「김영철전」. “外史氏曰, 英哲從征陷虜, 逃入中國 有妻子, 皆棄去不顧, 卒能返故國, 何其志之烈也. 其事亦可謂奇矣. 及根島之役, 出入死地, 勤勞至甚, 其功可紀, 曾無尺寸之賞, 而縣令索馬價, 戶曹又督南草銀, 使之老爲守城卒, 困窮抑鬱而死. 此何以勸天下忠志之士也. 余悲其事迹湮沒不顯於世. 故爲此傳, 以示後人, 使知東國有金英哲云.”

다. 국가에서는 충의를 권면하지만, 막상 충의를 다해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삶 자체를 더욱 곤궁하게 한다면, 다시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런 풍토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 것이다. 여기서도 홍세태는 거듭 슬픈 감정[悲]을 표명하는데, 이는 작가와 입전 인물 사이에 이성적이고 객관적 거리가 놓여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홍세태는 김영철의 삶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조선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는 쓰일 수 없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중인 홍세태가 역사의 이면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갈 하층민의 삶을 입전한 이유이다. 홍세태가 득의의 삶을 살았거나, 최소한 양반 계층의 일원이었다면, 하층민의 삶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비감을 못 이겨 그 일생을 입전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입전했다고 해도 不遇함에 대한 울분을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철전」에는 17세기 전반 전란기를 살았던 하층민의 삶과 함께 18세기 초의 불우한 중인 지식인의 삶이 함께 투영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홍세태가 하층민의 삶만을 전적으로 대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중인의 삶이 대개 그러하듯 그 또한 상층 사대부의 생활과 이념에 대한 지향과 하층민의 불우한 삶에 대한 공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김영철전」에도 그러한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홍세태가 지은 나머지 두 편의 전, 「庾述夫傳」과 「金將軍傳」이 각각 중인의 불우한 삶과 忠義라는 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중적 지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 VI. 「김영철전」의 문학사적 의의

지금까지 홍세태의 「김영철전」이 實傳임을 몇몇 방증을 통해 입증하고, 이어 그 傳으로서의 갈래 정체성과 열전의 미학 원리에 입각한 讀法을 논의하였다. 당시 후금은 조선인 포로를 노예로 부렸고, 그중 건장한 이들은 八旗에 포함시켜 전쟁 자원으로 활용하였고,<sup>55)</sup> 이들 중에는 여러 경로로 탈출한 자들도 많았는데,<sup>56)</sup> 이

55) 손춘일, 「중국 조선족 역사의 상한과 遼寧·河北의 朴氏人들」, 『梨花史學研究』, 20·21합집(1993), 81~87쪽.

는 모두 작중의 상황과 정확하게 부합된다. 당시 후금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늘 牧馬에 철저했는데, 이 또한 김영철이 전쟁에 앞서 말 관리하는 일에 종사한 것과 일치한다.<sup>57)</sup> 또 작품에서는 1630년 10월 조선의 進賀使가 등주에 도착했고, 이듬해 봄 사신 일행이 등주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는 『인조실록』의 기록과 거의 맞아떨어진다.<sup>58)</sup> 「김영철전」을 소설로 보기에는 그 형식적 표지나 내용상의 사실성이 지나치게 완고하다. 이러한 이유로 논자는 「김영철전」을 실전으로 보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문학성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한글본 「김철전」이나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과는 시대는 물론 장르 기반을 달리한다. 홍세태의 작품은 전형적인 傳의 형식과 미학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두 작품은 양식상 소설에 가깝게 진화한 것이다. 두 작품이 홍세태의 작품을 근거로 부연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머지 두 작품과 창작 시대 및 양식이 다른 홍세태의 「김영철전」을 무의미한 개작본으로 간주하거나, 소설의 독법으로 傳 작품을 무리하게 해석·평가하는 것은, 작품의 미학적 이해는 물론 문학사의 정립을 위해서도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세태의 「김영철전」과 나머지 두 작품은 시대와 양식의 층위를 달리하여 2원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한 뒤, 그 관련성과 계기성을 살피는 것이

- 56) 후금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조선군 포로의 숫자는 5,000명가량이었다(李民寯은 4,000명이라 했음). 이들은 대부분 후금의 본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城 근처 농가에 분산 배부되어 牧馬와 농업 등에 사역되었다(『광해군일기』 12년 5월 20일조). 하지만 당시 수시로 전쟁을 수행했던 후금은 조선군 포로들의 감시에 소홀하여 탈출자가 속출하였다(李民寯, 「柵中日錄」 1619년 7월 2, 3일 등의 기사). 이듬해인 1620년 7월까지 탈출하여 돌아온 자가 2,700명에 달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죽은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柵中日錄」 7월 17일). 그전 후금의 진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500~600명에 달하니, 당시 포로가 된 조선 군졸 중 끝내 후금의 진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1,000~1,500명 정도이다. 김영철은 이들 포로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 57) 후금은 전투 사이마다 말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는데, 주로 변경의 물가 풀이 많은 곳에서 놓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청개국방략』에는 ‘牧馬邊境’이란 말이 자주 보인다. 1619년 4월 누르하치는 戰馬들이 말라 수척하다며, 강가 풀이 우거진 곳에서 말들을 먹일 것을 지시한 일이 있다. 작품에서 영철은 建州 강변에서 말을 기르다 탈출했는데, 이 또한 당시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다.
- 58) 『인조실록』에 따르면 1630년 7월 정두원으로 하여금 등주해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奏文을 가지고 가게 했으며, 이듬해 6월 24일 진하사 정두원이 중국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인조가 정두원을 불러 登州와 萊州을 사정을 물었다. 이로 보아 1630년 10월쯤 진하사 정두원이 등주에 도착했고, 이듬해 봄 등주를 출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홍세태의 「김영철전」을 18세기 초반에 지어진 傳으로 읽을 때, 이 작품이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자칫 편향적이고 기형적으로 이해될 뻔한 深河戰役 및 그 이후 조선의 실상을 하층민의 시각에서 조명하여, 균형 잡히고 입체적인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있어 김영철의 행적이 사실인가 허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는 역사의 실상을 더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역사의 어떤 면을 선택하고 그 부분을 기록하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하층민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와 안목이고, 선택한 것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문학적 능력이다.<sup>59)</sup>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작게는 1619년 深河戰役, 크게는 1636년 병자호란 이후 錦州 戰役의 하부 실상은 물론 당시 지배층의 허상까지도 여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굳이 소설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문학사의 한 면을 차지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 참고문헌

『인조실록』; 『광해군일기』; 『皇清開國方略』.

金昌翁, 『三淵集』.

김성탄, 『第五才子書施耐菴水滸傳』.

朴允默, 『存齋集』.

成海應, 『연경재전집』.

安錫傲, 『雪橋集』.

59) 양승민은 새로 발굴된 「김영철전」이 傳奇小說의 양식을 더욱 확장시켜 당대의 보편적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그리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주인공 김영철의 일대기를 특정 역사적 사실로 읽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역사는 특수성을, 문학은 보편성을 말한다는 『시학』의 명제를 새삼 환기시켰다(양승민, 앞의 논문, 301쪽). 대상 텍스트가 다르긴 하지만, 이는 본고의 논점과 상반되기에 밝혀둔다. 한 가지 창조적인 대화를 위해, 문학이 곧 허구는 아니며, 또 역사기술도 얼마든지 문학적이며 보편적인 진실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둔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姚祖恩, 『史記菁華錄』.

有井範平 補標, 『史記評林』.

李棟完, 『茅山先生文集』.

李民賓, 『紫巖集』.

洪世泰, 『柳下集』.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 2004, 41~95쪽.

권혁래, 「나손본 「김철전」의 史實성과 여성적 시각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15, 1999, 113~147쪽.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22, 2006, 93~125쪽.

김진규, 「김영철전의 포로소설적 성격」. 『새얼어문논집』 13, 2000, 251~288쪽.

나만갑/윤계영(윤희), 『명자록』. 서울: 정음사, 1974.

루샤오핑/조미원(외 윤희), 『역사에서 허구로』. 서울: 길, 2001.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박희병, 「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 주인공의 등장: 「강노전」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 소설과 서사문학(상)』. 서울: 집문당, 1998.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民衆의 삶: 「金英哲傳」의 분석」. 김학성(외 편),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13~51쪽.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18, 2004, 85~108쪽.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138, 2004, 277~301쪽.

王從安, 「薩爾滸戰役東路戰場」. 富國良(주편), 『桓仁史話』. 桓仁滿族自治縣人民政府地方誌辦公室, 1999.

이상진, 「조선후기 여항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의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승수, 「深河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 23~53쪽.

이승수, 「深河戰役의 현장 답사 연구」. 『한국학논집』 4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7.

이승수(외),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서울: 푸른역사, 2005.

정출현,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 15세기 「金鰲新話」에서 18세기초 「金英哲傳」까지」. 『민족문학사연구』 2, 1992, 104~128쪽.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국문 요약

「김영철전」은 1619년에 있었던 深河戰役에 참여했던 하층민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서사 작품으로, 연구 초기부터 소설사의 주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는 한글본 및 원본 계열로 보이는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어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자못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연구자들 대부분은 「김영철전」의 갈래를 소설로 확정하여 그 형식적 특성과 역사적 가치를 논하였는데,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면서 1717년 洪世泰(1653~1725)가 지은 「김영철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새 이본이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의 원작이 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닌 實傳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8세기 초 소설사의 복잡한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작품을 배타적으로 어느 한 갈래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논자가 보기에 「김영철전」은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허구서사로서의 實傳의 속성이 강하다. 또 實傳의 미학에 의거하여, 실전의 독법으로 해석해도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조금도 저하되지 않는다.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자칫 편향적이고 기형적으로 이해될 뻔한 深河戰役 및 그 이후 조선의 실상을 하층민의 시각에서 조명하여, 균형 잡히고 입체적인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이 문제에 있어 김영철의 행적이 사실인가 허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는 역사의 실상을 더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역사의 어떤 면을 선택하고 그 부분을 기록하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하층민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와 안목이고, 선택한 것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문학적 능력이다.

● 투고일 : 2007. 4. 6.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洪世泰(Hong Se-te), 金英哲(Kim Young-chul), 心河戰役(The Battle of Simha), 歷史徐事(History Narration), 傳의 미학(Aesthetics of Biographies), 傳의 독법(Reading-method of Biographies).